



미국 경제지표 호조세 지속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2011년 4/4분기 미국 GDP 성장률(확정치)이 2010년 2/4분기 이후 가장 높은 3.0%를 기록하였고, 2012년 2월 소비지출과 소비자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.

- GDP 항목 중 소비지출 증가율은 2.1%로 잠정치와 같았으나 비주거용 고정투자는 0.3%p 상승한 5.2%로 나타나 GDP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, 수출은 1.6%p 하락한 2.7% 증가함.
- 3월 30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2월 소비지출이 전월대비 0.8% 증가하면서 7개월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, 이는 휘발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.
- 톰슨 로이터/미시간대학의 2월 소비자 태도지수(Consumer Sentiment Index)도 2011년 2월 이후 최고치인 76.2를 기록함.

■ 미국 제조업지수는 32주 연속 50선을 상회하였으며, 대기업 CEO들도 향후 고용과 매출 증가를 낙관하고 있음.

-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(ISM)는 3월 제조업지수가 전월대비 1.0p 상승한 53.4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, 제조업지수는 32주 연속 경기확장 기준인 50을 상회함.
- 제조업지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전반적인 내구재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임.
- 한편 대기업 CEO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의 35%보다 많은 42%의 CEO들이 향후 6개월간 고용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, 80%의 CEO들이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.

(Washington Post, 4/3 등)